

# Living the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2  
2019

VOL. 161

開祖隨感

## 오로지 정직 하나로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은 이것을 위해서라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부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공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간에서는 남에게 나를 다 보이지 않고 숨기는 것이 있어도 반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마음속에 부처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백퍼센트 오로지 정직 하나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조금 속인다거나 그럴듯한 말로 사기를 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좋은 일을

하면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불제천선신이 보고 계신다고 믿고 노력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을 되돌아 봐도 가장 큰 행복은 부처님을 끝까지 믿고 조금도 의심 없이 오늘 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런 걱정 없이 믿을 수 있었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개조수감 9 P. 190-191

Living the Lotus  
Vol. 161 (February 2019)

【発行】立正佼成会 国際伝道部  
〒166-8537 東京都杉並区和田2-7-1  
普門メディアセンター3F  
Tel: 03-5341-1124 Fax: 03-5341-1224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mailto: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編集責任者: 齋藤 高市  
編集チーフ: 鈴木健祐  
翻訳者: 金 恩美  
校閲者: 成 淑姫  
編集スタッフ: 国際伝道部スタッフ

입정교성회는 1938년 개조 니와노 닛교, 협조 나가노마 묘코에 의해창립된 법화삼부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재가 불교 교단입니다.

가정,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살려서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니와노 니찌꼬 회장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는 물론, 각 계 사람들과 손을 잡고 국내외의 여러 가지 평화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법화경에 살다- 생활속의 불교)라고 하는 타이틀에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매일 생활 속에 살려서 흙탕물에 피는 연꽃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그리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라는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인터넷을 통해 발신하고 있습니다.



##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습관」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 (庭野日鑛)



### 얻는 것은 덕(德)이다

길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 괜찮은지 말을 건네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신경이 쓰이면서도 쓸 데 없는 참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이해 타산적으로 판단하여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소극적이 되기 쉬운데, 사람은 좀처럼 손득을 따지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트러블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져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분명 한 푼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이득이 되지 않아요.

손득의 「득(得)」은 도덕의 「덕(德)」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 푼도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나오는 실천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덕이 되어서 인간으로서의 성장 등, 아주 소중한 마음의 재산이 됩니다.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싶다고 바라는 이욕(利慾)이 인간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덕(德)」을 불러온다는 의미에서, 얻는 것 즉 「득(得)」은 「덕(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잘 알면서도 곤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무언가를 해 주고 싶다」고 바라는 마음에서 한 발 내딛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용기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량의경에 「불쌍히 생각하고 큰 자비심을 내어 곧 구해내고자 하며 또 다시 깊이 일체의 모든 법에 들게 함이라」(설법품)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눈앞의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고통에서 구제해주자』고 결심하라」는 의미로 보살을 가르치는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본위의 얽매임과 집착에서



멀어져 사물의 진실을 판별할 수 있도록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즉, 좀처럼 이해타산적인 기준을 버릴 수 없는 우리들이라도 정진을 함으로써 손득을 따지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것이 마음의 습관이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타산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모든 것은 하나

「눈이 내리면 / 춥겠지/ 아무리 추워도 / 아무리 차가워도 / 무덤에 / 우산을 씌우러 간다 / 어린 자식을 잃은 / 어머니」

이와 같은 시의 한 구절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애달픈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동시에 보살이 사람을 배려하는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죽은 아이와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워요, 차가워요 하는 소리 없는 목소리를 듣고 끊어오르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행동에 옮겼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 보살의 자비를 본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본위의 얽매임과 집착에서 멀어져 사물의 진실을 판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처럼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로 보게 되면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잘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끊어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움직여 배려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다」라고 보는 시각에 의해 배려가 「마음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개조님이 태어나신 니가타현 토오카마치시를 방문했을 때, 공원에 서 있는 개조님의 흉상(胸像)이 비를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저의 스승이자 아버지인 개조님께 우산을 씌워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자연스럽게 배려할 수 있도록 저도 더 한층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도우부난(至道無難) 선사는 「자비를 베풀면서도 그것이 자비라는 것을 모를 때 부처이니라」고 가르쳐주셨듯이 상대방과 하나가 되면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의식도 없이 베푸는 그 배려가 서로의 기쁨과 마음의 성장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회장법화 2019년 2월)

